

이달의 어항 ⑥ -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항

‘생(生), 동(動), 감(感)’이 넘치는 건전한 여가공간, 마량항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삼박자를 갖춘 어촌어항복합공간



전남 강진의 옛 명칭은 탐진(耽津), 탐라(耽羅)의 사자가 신라에 조공할 때 배가 이 강 하구의 구십포(九十浦)에 머물렀다고 해서 탐라국의 탐(耽)자와 강진의 진(津)자를 따서 탐진이라 한 데서 유래되었고, 1417년 도강현과 탐진현을 합하여 강진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강진현은 1895년과 1896년의 지방제 개편으로 전라남도 강진군이 되었다. 이렇듯 탐진은 고대 탐라국을 잇는 연륙교통의 길목, 즉 관문이었다.

이러한 고대탐라국 교통의 길목에 새로운 문화의 장이 열렸다.

지난 2006년 9월 29일 전국최초 시범사업인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의해서 천혜의 미항인 마량항이 ‘생(生), 동(動), 감(感)’이 넘치는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2005년 2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총 사업비 112억을 투입하여 “매력적인 어항경관 창출,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도모, 마량항의 관광경쟁력 제고”라는 목표하에 완성한 마량항은 각 방파제를 ‘생(生), 동(動), 감(感)’이라는 주제로 특색있게 조성하였다.

중방파제 - ‘生’의 공간

중방파제는 잔교시설로 부지를 조성, 공간을 확보한 후 천연기념물 제172호인 까

막섬, 대오도, 소오도 등 주변 청정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과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하방파제 - ‘動’의 공간
하방파제는 각종행사, 이벤트, 축제시 열린 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파제 두부구간에 지름 36m의 원형 잔교를 형성한 후 무대공간을 만들고 무대 주변에 스탠드를 설치하

여 객석의 기능과 휴게공간의 기능을 갖춘 동적인 공간을 조성하였다.

동방파제 - ‘感’의 공간

낚시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동방파제는 돌담블록을 이용, 정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산책과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3개의 방파제는 공간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산책로인 데크를 이용하여 연결하였으며, 야간에는 LED조명 연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의 수로와 은하수 물결이 연속적이며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하는 빛의 파노라마가 연출되는 낭만적인 공간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작은 음악회’와 일요일 ‘어울림 마당’도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들기 충분하다.

주변관광지

마량항 주변에는 두 개로 섬으로 이루어

져 예전에는 수천마리의 까마귀가 날아왔다고 불리는 천연기념물 제172호인 까막섬과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고려청자와 그 청자를 빚기 위해 고뇌하던 이룸모를 도공들의 예술혼이 넘쳐나는 국내 유일의 강진 청자자료박물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18년중 10여년동안 생활하면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500여권에 달하는 조선조 후기 실학을 집대성 하였던 다산초당, 신라말에 창건되어 조선후기 원묘국사3세가 보현도량을 개설하고 백련결사를 일으킨 유서 깊은 명찰 백년사, 신라 진평왕때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국보 13호 무위사 등이 있으며, 2007년 초에 강진 마량과 완도 고금을 연결하는 고금대교가 개통되어 ‘주 5일 근무제’확산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먹거리

강진하면 강진만에서 올라오는 청정하고 풍부한 해산물과 산과 들이 적절히 어울려 많은 나물과 반찬거리가 풍부해 어느 식당을 가든지 모든 반찬이 푸짐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강진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남도 한정식이다. 맛에 통달한 마을에서나 낼 수 있는 상이다. 한상 가득히 음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접시가 2층, 3층으로 쌓인다. 약간 상다리는 정말 휘어진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1만원 내외의 한정식에서부터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곤 하는 병영의 백반집은 무조건 4인기준 한상에 2만원을 받는다. 4인이든 2인이든.

♣ 찾아가는 길

광주버스터미널-나주-영암 방면 국도 13호선-강진군 성전면-삼거리에서 강진으로 직진-강진읍-국도 23호선 마량 방면 24km지점 마량항